

# 이재명 대표, 인재 영입·공천 관리 위해 빠른 복귀 의지

### 식사·가족과 대화 등 회복중...의료진 “당분간 정상 활동 힘들어” 인재 영입 작업 정상가동 시급...총선 앞 단일대오 구축 과제도

흉기 피습을 당해 병원에서 치료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조기 당무 복귀 의지를 내비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지난 3일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긴 뒤 5일 점심부터는 미음으로 식사하고 가족들과는 간단한 대화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에서는 이 대표의 여의도 복귀가 빨라야 이달 중순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본인의 조기 복귀 의지가 강해 측근들이 만류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이 대표와 가까운 한 의원은 7일 언론과 통화에서

“당무를 보겠다는 의지가 강한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의료진의 판단도 현 상태에선 2주 후에도 정상 활동은 힘들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 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본인이 위원장이기도 한 인재영입위원회나 공천관리위원회 활동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27일 ‘총선 4호 영입 인재’를 공개했는데 이후 ‘5호 인재’는 감감무소식이다. 이 대표 피습 사건 전에는 약 나흘 간격으로 영입 인재를 공개했었다.

공천관리위원회 구성도 새해 첫날인 지난 1일 밤 최고위원들 간 협의가 끝났으나 피습 사건 여파로 나흘 뒤인 5일에서야 최고위 의결로 완료됐다.

당 관계자는 “이 대표로선 예기치 않은 사고였지만 무리해서라도 총선 승리의 밑바탕이 될 인재 영입 작업만큼은 정상 가동해야 한다는 의지가 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재 영입과 공천위 활동 등 실무 작업과는 별개로 이 대표가 국회 복귀 후 풀어야 할 최대 숙제는 총선 앞 단일대오를 구축하기 위한 내부 통합이 꼽힌다. 피습 사건으로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이낙연 신당’의 보복도 다시 켜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광주 5·18 민주묘지에 이어 전남 영광에 있는 선영을 참배하며 신당 창

당 의지를 다시금 확고히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비명(비이재명)계 4인방인 ‘원칙과 상식’ 소속 의원들은 이 대표가 퇴원하기 전이라도 최후통첩에 나설 태세다.

이 대표가 통합 비상대책위원회를 수용하지 않으면 거취 문제에 결론을 내겠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 때문에 이 대표가 당무 복귀가 이뤄질 경우 첫 메시지는 통합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예상되지만 커질 대로 커진 당내 원심력을 차단할 뾰족한 수는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 전 대표는 물론 ‘원칙과 상식’이 내세운 첫째 조건이 바로 대표직 사퇴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단식 농성을 마치고 퇴원한 뒤 이 대표의 첫 당부는 ‘작은 차이를 넘어선 단결’이었으나

비명계에서 거의 반항을 일으키지 못했다.

한 고위 당직자는 “대표직 사퇴는 비명계 중에서도 특히 일부의 주장이고 총선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 대표로선 절대로 받을 수 없는 카드”라고 말했다.

최근 이 대표의 당무 공백 기간에 발표된 공천위원 가운데 당내 인사는 모두 친명(친이재명)계라는 점도 계파 갈등을 더욱 키우는 요인이 될 것이라 우려도 제기된다.

한 재선 의원은 “계파색이 엮은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번 공천위 구성을 두고 걱정하는 분위기가 있다”며 “당장 본인들의 공천이 달린 문제여서 공개적으로 반발하지 못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특검 거부 규탄대회 지난 5일 국회 본청 앞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진보당과 기본소득당 등 야 4당이 연 ‘김건희, 50억 클럽 특검 거부 규탄대회’에서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경찰 “이재명 습격범 당적 공개 불가”

### 정당법상 정보 누설 안돼...다습범 동기 등 수사 결과 발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이후 여야 정치권, 지지자 간 갈등이 심각한 가운데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피의자 김모(67) 씨 당적 여부가 경찰 수사에서 공개되지 않을 개연성이 커졌다.

7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경찰청은 피의자 김씨의 당적을 공개하기 어렵다는 내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 직후 현행범으로 체포된 김씨를 상대로 당적 보유 여부를 조사했다.

경찰은 당적과 관련한 김씨 진술을 공식 확인하려고 3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은 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서 김씨의 과거·현재 당적을 파악했지만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정당법상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자 당적 정보를 누설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경찰은 김씨 당적이 국민적 관심사지만 내부 논의를 거쳐 관련 법에 따라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주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서 경찰은 김씨 당적 여부를 빼고 범행 동기, 공범 여부 등을 밝힐 예정이다.

일각에선 정당법 관련 조항이 사문화됐고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경찰이 김씨 당적을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법에 따라 조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김씨 당원 이력은 정치권을 통해 흘러나온 상태다.

하지만 여야는 각각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를 정쟁에 이용하고 지지자들 역시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어 경찰 수사로 정리될 바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경찰의 피의자 당적 비공개 방침으로 당분간 정치권 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역시 경찰과 비슷한 입장으로 알려져 김씨 당적은 기소 후 재판 과정에서나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 쌍특검 재표결 ... 여 “9일” 야 “2월 이후” 수싸움

### 내일 본회의 앞두고 대치...이태원법 오늘 재협상

오는 9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50억클럽 의혹 특검법이 국회로 돌아오면서 여야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의 9일 본회의 재표결을 통해 법안을 폐기하겠다는 구상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반대하고 있다.

재표결 시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298명)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현재 야권 의석을 모두 합해도 약 180석 정도이기 때문

에 가결까지는 20표가량 부족하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을 폐기하는 게 목표다. 쌍특검법이 부결된다면 총선에 미칠 영향을 차단하겠다는 볼 끼기 작전이 성공하게 된다.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이 배우자 관련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며 권한쟁의 심판 청구 카드를 꺼내들 태세다.

민주당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위한 법적 검토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고려하면 9일 본회의에 처리는 물리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2월 이후로 쌍특검법 재표

결을 미룰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쌍특검법 외에도 9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될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뇌관이다.

원내 과반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은 이번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오는 8일 정례 회동에 이어 9일 당일까지도 본회의 의사일정을 포함해 논의가 이어가겠다는 방침이지만, 절충점을 찾지는 미지수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경우 민주당은 9일까지 여야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현재 본회의에 부의된 특별법을 무조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 ‘민주 탈당’ 이상민 “국민의힘 입당”

### 현 지역구 대전 유성을 출마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5선 이상민 의원이 국민의힘에 입당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7일 언론과의 통화에서 “2~3일 내에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굳혔다”며 국민의힘 입당 계획을 확인했다.

이 의원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속 깊은 얘기를 해보니, 그분이 원곡이든 오른쪽이든 모두에서 정답을 찾겠다는 말이나 격차 해소를 하겠다는 게 나의 정치 철학과 비전과 맞는다”고 했다.

또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을 생각해서 노력하면 국민의힘이 큰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나 또한 국

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어려운 상황이니 가서 조금이라도 기여를 하면 보람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총선 출마는 현 지역구에서 그대로 하느냐고 묻자 “그렇다. 그래서 양심에 거리낌 없이 당당히 간다”고 답했다.

이 의원의 지역구는 대전 유성구이다. 이 지역구의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자리는 현재 비어있다.

그는 주말에 한 위원장과 서울 종로의 한 식당에서 1시간가량 만나 오찬을 함께했다.

한 위원장은 오찬 후 “이 의원에게 저희와 함께 해달라고 부탁드렸다”고 했으며, 이 의원은 “속고 해서 말씀드렸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함께하는 100년 농협

##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쿡!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쿡! 바로 바로 확인까지 쿡!

**올바른 POINT UP 카드**  
국내·외 전 가맹점에서 무제한 포인트 적립!  
전 가맹점 최대%적립 + 생활밀착형 가맹점 추가 적립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국제공항 라운지 무료이용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2201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10만원(임시상90일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특약가입시) 월5만원으로 만기시 80%환급 (매월변동가능, 공과비를 2022년 1월 기준)

**햇살론**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362-8400~6 FAX. 062)362-8407

용산지점 062)526-0222~3	유동지점 062)512-1984~5	유덕지점 062)373-3235~6	온암벽산지점 062)529-5335~6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치평지점 062)381-8212~3	동문지점 062)513-8521~3	동문지점 062)528-2640~2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로컬푸드(시청) 062)364-8400
쌍촌지점 062)381-6551~2	운암지점 062)527-3295~6	배틀지점 062)381-1971~2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외정지점 062)372-0421~3	운천지점 062)371-2772~3	상무동지점 062)372-3741~2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